



"시지도 알아서 군내부터 먼저 난다"

뜻: 어른이 되기도 전에,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먼저 배울 때 쓰는 말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조숙 · 탈선 · 순서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시	지	도	↓	알	아	서											
군	내	부	터	↓	먼	저	↓	난	다								

2단계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시	지	도	↓	알	아	서											
군	내	부	터	↓	먼	저	↓	난	다								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				↓													
							↓					↓					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ㅅ ㅈ ㄷ] [ㅇ ㅅ ㅈ] [ㄱ ㄴ ㅂ ㅌ] [ㅁ ㅈ] [ㄴ ㄷ]

웹에서 보기

